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김 남 이
편집인: 김 태 균
인쇄인: 김 성 회
발행처: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12-49
우. 130-875
홈페이지: andongkim.net

대종회 제41회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제41회 정기총회 정기인수)

안동김씨 대종회 제41회 정기총회가 2008년 3월 14일 오전 11시 정각 서울 용산 효창공원내 백범기념관에서 350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회의는 (典)춘교 인천종친



(제41회 정기총회 공로패 수여)

회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사무총장의 성원보고 후 식 대종회장의 개회선언, 국민의례와 내빈, 본회회장단에 대한 사무총장의 인사 소개에 이어 각고의 노력으로 박사학위 취득, 고시합격등으로 우리 안동김씨문중을 빛낸 종친에 대한 축하패전달이 있는 다음 회장 인사겸 이임사,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 이명환님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2007년 회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2007년도 결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임원개선에서는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한 대로 제21대 대종회장에 제학공20대손 남응종친을 신임감사에 익원공20대손 좌회 종친과 안렴사공22대손 광식 종친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어서 전임회장이 신임회장에게 종기전수가 있었으며 신임회장이 전임임원(전임회장, 전임

사무총장)에게 대종회운영발전에 대한 공로패 증정과 신임회장의 취임사, 기타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기타토의 시간에는 (按)태승 종친의 세(世)와 대(代)의 구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提)학응고문님의 설명과 결산서 계수차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답변, (翼)태영 파종회장의 총렬공 할아버님영정을 다시모셔야 한다는 의견과 (提)태환종친의 총렬공 상계인 숙승 할아버님부터 상서공 효인 할

아버님의 제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장의 고려의견이 토의되었다 이날회의는 천안시 병천소재 아우내문화원 소속 실버 오카리나 합주단의 식전행사가 있었으며(아우내 문화원은 우리 안동김씨가 1958년 설립한 백전문화원이 발전한것임) 회의 전과정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에서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들면서 담소를 나누고 오후1시30경 회의를 마쳤다.

축하패를 받은 종친

농 학 박 사 (按)21대손 은숙, 20대손 태중.
법 학 박 사 (翼)22대손 이식.
공 학 박 사 (書)21대손 상덕, (翼)21대손 태호, (按)21대손 태영, (翼)20대손 주호, (都)21대손 희완.
미 술 학 박 사 (按)19대손 재호.
행 정 학 박 사 (翼)20대손 대회.
국제통상학박사 (按)22대손 현주.

생명공학박사 (按)20대손 제현.
경 영 학 박 사 (提)21대손 령석.
이 학 박 사 (都)21대손 상우.
수 의 학 박 사 (翼)21대손 수.
사 법 고 시 합 격 (翼)24대손 삼성, 20대손 대연.
변 리 사 합 격 (翼)19대손 재우.
신 지 식 인 선 정 (翼)18대손 윤묵.
기 술 사 (都)21대손 희욱.
이상 20명.

就 任 辭



제가 제학공 할아버지 20대손 남응입니다. 김시민 할아버지와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천안 병천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대종회장의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신 종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고 발전하셔서 우리 안동김씨 문중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우리 안동김씨는 조선의 명가고 명문거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화려한 종친입

니다. 정승과 판서, 대제학 여러분이 배출되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은 짧습니다마는 우리 역사상 기억나는 인물들 손으로 꼽아 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등불이 되었던 세종대왕을 들 수가 있고 임란 때 해전에서의 승리를 본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만 우리 안동김씨에는 시조이신 총렬공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진주성을 사수하였던 충무공 김시민 할아버지와 만주족을 물리치고 요동땅을 정벌한 충무공 김응하장군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국란을 극복한 충무공 여덟분중 두분이나 배출되었으니 얼마나 화려한 우리 종족입니까?

그때 당시 만약에 진주성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또한 만주족의 침입을 막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곽창지대인 호남평야는 일본군의 손에 들어가 저들의 식량창고가 되었을 것이요 또한 북쪽의 영토는 만주족의 무대가 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셔져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평화를 몸과 마음으로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오신 우리들의 표상입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은 익원공과 사자 형자 할아버지의 20대손이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선조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저나 우리 종친 여러분들은 그 훌륭한 선조들의 피가 가슴가슴마다 흐르고 또 그 선조들의 영혼이 우리들에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동김씨의 가족은 명문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가 작년도에 여러 종친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내년도에 발행되는 10만원권에 김구 선생님의 영정이 인쇄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종인들의 성원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이 훌륭한 조상들의 유덕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첫째로 이 자리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서면서 제 마음속으로 종친들과 다짐을 합니다.

저는 첫째 이 훌륭한 선조들의 유덕을 숭모, 현양하고 두 번째는 종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 번째로는 종친간의 단합과 화합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최선의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종친 여러분,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 안동김씨대종회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4일 김 남 응

신임회장 이력

성명 김남응(金南應)
생년월일 1935년 2월 6일생
주소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317-13
학력 1957년 성균관대학교, 문리과대학 불문학과졸업
1990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경력 1968년 아우내중학교교장
1971년 아산동포중학교교장
1971년 아우내중학교교장
1981년 성환 동성중학교교장
천원군행정자문위원(6년)
천안경찰서자문위원(3년)
천안우체국협력위원(11년)
천안선거관리위원(12년)
현 아우내노인대학장

이 임 사 (離任辭)



친애하는 국내 외 60만 종친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과 김신 백범기념사업협회 이

사장님, 그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오늘은 안동김씨 제41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로 새로운 회장님을 선출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종친 여러분께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작별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이 성스러운 자

리에서 종친 여러분의 뜨거운 축하속에 취임하여 몇 가지 사업을 약속하였으나 저의 지도력 부족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종친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종친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의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종친회를 사랑해 주시고 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4일 김 홍 식

축 사 (祝 辭)

추운겨울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이 좋은 봄날, 이 나라 역사에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시고 훌륭한 문종으로 추앙을 받는 이 귀한 자리에서 축하의 인사를 올리게된점을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은 1902년도에는 이곳 마포와 개성을 연결하는 경의선 기공식이 열렸던 날이고 1951년 오늘은 6.25전쟁으로 빼앗겼던 우리 서울을 UN군과 국군이 다시 재탈환한 뜻깊고 영예로운 날입니다. 그동안 문종을 이끌어오신 김홍식 회장님과 오늘 취임하시는 김남응 회장님께 떠나심의 아쉬움과 영입하심의 즐거움이 함께 아우러져서 지속적인 문종의 발전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요소요소의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

는 문종으로 발전되시기를 거듭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원래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허 회장께서 오셔야 되는데 부득불 긴한 사유로 제가 대리참석해서 축하의 인사를 올리게 된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천안에 위치한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김시민 장군 동상 건립, 김시민 장군로, 길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김시민 장군도로 명명작업 추진, 김시민 장군 생애에 관련된 영상자료 제작, 각급 학교 및 단체에 김시민 장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타활동, 또한 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의 소식지 발간, 기타 생거지의 성역화 추진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일들을 앞두고 안동김씨 문종 김남응 오늘 취임하시는 회장님을 고문님으로 모시고 타성들이 약 100여명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일구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시간관계상 긴한 말씀은 차후에 또 올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기로 하고 작년에 천안학생 문화회관에서 약 600여 명의 시민과 김시민 장군을 숭모하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한 자리에 충무공 김시민 장군에 대한 헌시를 올렸기에 마침 오늘 이 자리에서 올렸던 시를 낭송 해 올리고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시여 꺼져가는 호랑불의 심지를 돌우고저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한 천안땅 잣밭에서 1554년에 태어나신 남이시여.

짧은 생애 39년 오직 한길 구국의 일념으로 미흡한 삼천군사 애국으로 독려하여 영원함 아우르는 진주성에 우뚝 서니 열악한 군비마다 앓고 신출 비범 병법으로 왜군 삼만 소탕하니 세계 승전사에 길이 남을 진주대첩 승리의 깃발을 장쾌히 휘날리신 남이시여.

여덟살 때는 진중놀이로 지역원님 사랑을 독차지했고 아홉살 때는 동네 축생과 아녀자를 괴롭히는 이무기를 뽕나무할 썩대 화살로 물리치셨으며 벼슬길에선 애국 강병 민생안정에 부와 명예가 보장된 안정 미련없이 박차고 나오시어 올 때와 갈 때를 분명히 가르쳐주셨던 남이시여.

이제 님의 큰 뜻 헛되지 않아 종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아세아에서 세계로 오천만이 힘 모아 희망의 행군을 멈추지 않을지니 남이시여 크나큰 지주로 받쳐주시고 꺼지지 않는 등대로 밝혀주소서.

흠모하는 남이시여 숭모하는 남이시여 경모하는 남이시여.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4일 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이사 이 명 환

2008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대중회 2008년 정기이사회회가 지난 3월 4일(화) 오전 11:00 대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는 이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회장 인사, 감사보고, 사무총장의 전년도 회계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영환이사의 총렬공전기기금 회계처리 불합리 지적이 있었으며 영목이사의 임원회비 납부가 저조하다는 문제제기, 재영이사의 안동 위토도조가 적게 들어온데 대한 질의, 태규 이사의 예비비 직접사용부당등의 지적이 있었

나 차후 면밀히 검토처리 토록하고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 시켰고, 이어서 사무총장의 2008년도 예산설명과, 재광이사의 홈페이지 예산이 일괄성이 없다는 지적, 봉회이사의 회관 임대료 조정건의가 있으나 차후 면밀히 검토 반영토록 하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홍식회장의 통상회비 납부저조로 대중회운영에 지장이 있으니 전회원이 납부토록 독려하여 줄것을 부탁함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대중회 임시 이사회 개최

2008. 4. 23 11:00 대중회 회의실에서 안동김씨대중회 임시 이사회회가 열렸다. 3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회장인사,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남응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안동김씨문종의 화목과 단결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자고 역설하고 대중회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어 안건토의에서 대동보발행 건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있었으며 찬성의견이 있는 참석자들도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차후 공문으로 각과중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차후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였고 총렬공할아버지 영정을 다시 그리자는 안건에 대하여는 영정을 다시 그리는데 합의하

고 제,안,익3과의 회장이 추천하는 3인과 회장이 추천하는 인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대전뿌리공원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부 이사의 반대가 있었으나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위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회칙개정에 관한건은 집행부에서 초안을 마련후 검토위원의 검토를거쳐 2009년 이사회에서 토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하고 홍보발행에 대한 건은 통상회비 납부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발행의 어려움이 있으나 차후검토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중식 비용은 남응회장이 부담하였다.

문은공파 종택 복원공사 고사



2008년 4월 28일(월) 11:00시 '안동김씨 문은공파 종택 복원공사 착공식 및 고사'가 포천시 문화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문은공파 종회장 광우 씨, 종손 광도 씨 및 30여 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거리 557번지 금수단 구역에서 거행되었다.

문은공파종회 광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강 이북지역의 유일한 종택 복원"임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와 유림 및 종친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했다. 또한 포천시장을 대리해 참석한 포천시 문화체육과 유기문 과장은 축사를 통해 '안동김씨 문은공파 종택'의 문화적 가치와 종택 복원 의의를 밝힌 뒤 종택 복원이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다. 이날 내빈으로 포천시 문화원장 이만구 선생, 성균관유도회 포천시회장 이윤우 선생 및 총무부장 최왕식 선생, 면암 최익현 선생 송모사업회장 이구상 선생, 포

천향교 사무국장 겸 경기도 문화유산 해설사 이종훈 선생, 김덕원 참수면장, 안동김씨대중회, 관북전사무총장, 태운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포천 문은공파 종택은 6·25전쟁 당시 소실되어 기단과 초석만 남은 상태였는데, 2004년 12월 포천시와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해 2005년 2월 매장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총서 제28책 <포천 안동김씨 종가집터 발굴조사 보고서>가 간행된 바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종택 복원공사를 맡은 금세기종합건설의 이상현 소장이 경과보고와 향후 복원사업 개요를 설명하였다. 이어 종손 광도 씨에 이어 이상현 소장, 포천지역 유림 대표 이윤우 선생 등이 고사를 지냈다.

종택 인근에는 포천시 향토유적 제17호인 금수정(金水亭)이 자리하고 있는데, 금수정은 영평8경의 하나로서 '경기도 제1경'으로 손꼽히는 명승지이다. 또한 인근에는 한석봉의 친필 '동천석문'을 비롯해 봉래 양사언 선생의 친필 시 등 조선시대 명사들의 암각문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다. 「기사제공 문은공파종회」

南應會長 中始祖 忠烈公 告由祭 奉行



지난 3월 28일 신임 남응 회장은 충렬공 묘소에 회장 취임 고유제를 올렸다 이날 고유제에는 서울지구와 병천, 진천, 청주, 증평, 괴산, 안동, 대구 등 경향에서 50여 명의 종친이 참석하였다. 고유제는 (文)영환의 집례로 남응회장의 헌작 (提)항용의

독축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축문을 한글로 하는 등 현대화한 방식으로 봉행하였다. 안동댐부근의 식당에서 점심식사후 음수재로 향하는 차중에서 안동종친회 용준 사무국장의 충렬공 전기발간에 따른 안동시장과 배영동교수에 대한 감사패 전달 내용과 충렬공 탄생 800주년 기념행사에 관하여 대중회

차원의 사전준비가 절실하다는 내용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일행은 고유제를 마치고 의성사촌을 방문 후산사를 참배하고 만취당, 도평의공과 종택, 사촌자료관을 둘러보았다. 이날 운행된 버스내에서는 종친회 운영에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고유제 제수는 안동종친회에서 준비했다.

告由祭文

檀君紀元 四千三百四十一年 三月二十九日, 二十四代孫 남응(南應)은 삼가 고하옵니다.

추충정난 정원공신 벽상삼한 광정대부 삼중대광 첨의중찬 판전리사사 세자사(推忠靖難定遠功臣壁上三韓匡靖大夫三重大匡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 첨의령(僉議令), 상락군 개국공(上洛郡 開國公), 증선충협모 정난정국공신 벽상삼한 삼중대광(贈宣忠協謀定難靖國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증시충렬(贈諡忠烈)이신 중시조(中始祖)님이시여! 일찍이 비조(鼻祖)이신 대보공(大輔公)께서 신라김씨를 창성(創姓)하신 이래 우리 선조님들은 대대로 신라의 왕위를 계승하였고, 고려와 조선조를 거쳐 현대로 이어오는 천년의 역사과정에서 명문벌족(名門別族)으로서 공경장상(公卿將相)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 나라의 내외위환(內憂外患)을 극복하고 안녕(安寧)과 번영(繁榮)을 이루어 내는데 중추적(中樞的) 위치에서 앞장서 왔습니다. 할아버님께서서는 고려 중

기, 중국 원나라의 세계제패 야욕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을 때 이곳 안동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탁월하신 용맹과 지혜를 타고 나셨던 할아버님께서서는 왕성한 학구열로 심신(心身)을 연마(鍊磨)하셨고, 출사(出仕)하신 뒤에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온갖 지혜와 용기로써 온전히 보존해 내셨으며, 특히 당시 최대의 난제(難題)였던 삼별초난을 명쾌히 진압하시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또한 원나라와 함께 이 나라 초유의 일본 원정이라는 육전과 해전을 겸한 세계적인 대전을 두 번 씩이나 치르게 될 때에도 할아버님께서서는 고려의 군통수권자인 도원수(都元帥)로서 이를 준비하고 지휘·독전하시어 동양 최대의 장수가 되셨습니다. 그 후 첨의중찬 판전리사사 세자사(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라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신 다음 치사(致仕)하셨으며, 첨의령(僉議令)을 가자(加資) 받으셨고 상락군 개국공(上洛郡 開國公)이란 작호와 함께 이곳 안동지방을 식읍(食邑) 삼천호(三千戶)와 식실봉(食實封) 삼백호(三百戶)로

받으셨습니다. 89세에 흥(薨)하신 뒤 선충협모 정난정국공신 벽상삼한 삼중대광(贈宣忠協謀定難靖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으로 추증되시고 시호(諡號) 충렬(忠烈)을 받으신 뒤 지금 이곳에 영면(永眠)하고 계시옵니다. 할아버님으로 하여 우리 안동김이란 아름다운 이름은 708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방의 으뜸가는 씨족(氏族)으로서 더욱 빛나고 있으며, 할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견위치명(見危致命)의 국가관(國家觀), 뛰어난 혜안(慧眼)과 깊은 통찰력(洞察力)에 의한 국제 외교관(外交觀), 청렴강직하면서도 어진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삶과 처세관(處世觀), 엄격하고도 자애로운 자녀 교육관(教育觀) 등은 면면히 이어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슴속에 삶과 철학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 3월 14일, 본 안동김씨 대중회 총회에서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한 제가 대중회 회장으로 추대되었기에 많은 종친 여러분과 함께 할아버님께 이를 고(告)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회장이란 직책은 위로는 열(列)선조님들의 위대

한 정신과 업적, 모든 유·무형의 유적(遺蹟)들을 드높이고 보살피며, 아래로는 우리의 고유하고도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일깨우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동량(棟樑)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전담하는 중책(重責)의 자리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본 대중회의 대소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현종(賢宗) 여러분들의 뜻과 역량(力量)을 모으고, 미래 지향적 방법을 모색하여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저의 온 혼신의 힘을 기울여 모든 일에 임할 것임을 할아버님 영전에 굳게 맹세하고 동시에 앞드려 고(告)하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굽어 살피고 계신 할아버님이시여! 부디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후손들이 할아버님의 자랑스러운 후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큰 힘을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비읍니다.

삼가 맑은 술과 간소한 제수를 올리오니 감림하시어 흠향하시옵소서.
2008. 3. 29.
26代孫 恒鏞 謹撰, 奉讀

〈백곡 김득신 연구 박사학위 논문 탄생 및 각종행사〉



지난 2월 말 서울 한성대학교에서 백곡김득신 선조님의 문학세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신범식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제목-백곡 김득신 문학연구)이 탄생되었다. 신선생님은 현재 충북대학교와 증평 형석고에서 한문 강사로 재직중이며 증평의 백곡기념사업회 연구위원이시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신선생님은 '백곡문학이야말로 조선조 증기인 17C 한문학의 정수(精髓)로서, 자신의 독립적 문학 이론에 입각하여 당풍(唐風)의 문학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형상화(形象化)해 낸 위대한 시인이며, 작품의 내재적(內在的)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주의적 비평관으로 당대의 시문학작품을 비평한 수준 높은 평론서를 펴낸 참비평가라고 정의하면서 우리 문학사에 백곡의 문학적 위상

을 높이 자리 매김하고 평가하였다. 한편 지난 해 5월 27일에는 충북 증평문화원과 문인협회에서 주최한 <제6회 백곡 김득신 기념 백일장> 행사가 증평 시민 공원에서 열렸고, 이어 11월 18일에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백곡 선조님의 시 <집허당 육경>이 <서담의 소나기> <신범식역, 이상미 작곡, 테너 최준근 노래>란 이름의 가곡으로 발표된 바 있는데, 이 가곡은 우리 문중 선조님의 시 가운데서는 최초로 창작된 가곡이 아닌가 한다.

〈集虛堂六景〉 (집허당의 여섯 경치)
急雨西潭下 소낙비 저 편 연못에 내리니
隨風玉索連 바람 따라 옥으로 새끼 끈 듯 이
어지네
疏時橫碧樹 성글게 올 때는 푸른 나무에 비졌
더니
密處雜蒼煙 뿜뿜하게 내리는 곳에는 푸른 연
기 섞이네
涼氣通空峽 서늘한 기운은 텅 빈 골짜기를 통
했고
寒聲聞半天 찬 빗소리는 중천에 시끄럽네
芭蕉葉上滴 파초 잎 위에 떨어지니
驚覺北窓眠 북창가에서 즐다 놀라서 깨네

「기사 제공 : 항용(提)」

서담의 소나기

Moderato

작사 김득신
번역 신범식
작곡 이상미

저 편 연-못에 소 낙 비 내리니 바람
따 라 옥으로 새끼 끈 듯이 어지네 성글
게 울-때는 푸른 나무에 비졌더니 뿜뿜
하 게 내리는 곳 연 푸른 연 기 섞이네
서 늘한 기운은 텅 빈 골짜기를 통 싸고 한
빛 소리는 하늘 에 하 놀라 염 도네

저 편 연-못에 소 낙 비 내리니 바람
따 라 옥으로 새끼 끈 듯이 어지네 성글
게 울-때는 푸른 나무에 비졌더니 뿜뿜
하 게 내리는 곳 연 푸른 연 기 섞이네
파 초 잎 위-에 빗 떨어 떨어-지-니 뿜
성 기에서 즐 다 놀 라서 - 놀 라서 깨 네

文英公(諱 恂) 聖域化 1段階 마무리



정성스레 청소하고 해석 탁본등에 열을 올렸다. 점심시간에는 묘지명 관리에 관한 토론이 집중되었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자는데 합의하였다.

점심식사 후 공의 품격에 맞는 자료조사를 토대로 성역화 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명희님께서 가져온 나경판을 사용하여 좌향을 확인한 결과 丑坐未向이었다(佐會 確因) 따라서 모셔진 축좌미향을 중심으로 성역화를 시작하였다.

종인들이 광중의 개장여부로 의견이 갈렸으나 개장하기로 뜻을 모아 묘를 60cm정도 파헤쳐 이미 남아 부스러지는 흥대를 들어내며 속 광중을 살펴보니 좌향이 간좌가 아니고 축좌 미향으로 깊이 25cm 길이 150cm정도의 광중 속에 빨간 흙과 칠성판조각이 보여 급하게 칠성판과 칠포 창호지 흥대 생석회를 구입하러 갔다 수습한 시신(실제로는 빨간 흙)을 칠성판에 창호지를 깔고 명희, 재영 두 명이 칠포를 감아 모셔 놓고 길 광중을 폭 60cm 길이 220cm 깊이

90cm 로 파고 그 밑에 속 광중을 폭30cm 길이210cm 깊이30cm로 판 후 재영,명희 두 분이 시신을 하관한 후 흥대를 덮고 명희씨가 쓴 명정을 덮었으나 생석회를 구입치 못하여 약간의 부토만을 하고 비닐천막을 씌운후에 작업을 마치고 발견된 지석을 은희씨가 등에 지고 내려와 재실의 금고에 보관하였으나 지석을 다시 묻을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치 못하다가 일단은 금고에 보관하고 박물관 위탁 및 모형을 만들어 진열과 묻는 문제를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4월14일(둘째날)

생석회를 구입하여 회 방아를 다지고 평토를 하였으며 석물이 도착하여 하차하고 가로4.5m 세로 5.5m의 기초를 한 후 사각석(40 * 40 * 100cm) 1단을 놓아 보고 활개 등의 묘역정리를 하는 중 그린벨트내의 묘 이장에 대한 민원이 신고 되어 동안구청직원이 출장 나와 지적함에 급히 묘역 외곽에 소나무를 사다가 심어 주었음

4월15일(셋째날)

묘 사각 돌레석을 1단과 2단의 어긋 쌓기를 하였으며 6자짜리 상석을 놓은 다음 평토제는 초헌에

회장 회운 아헌 상천씨, 삼헌 태영씨, 사헌 상호씨, 종헌 예묵씨 독축 명희.

거북좌대를 얹히고 좌대위의 우묵한 부분에 세멘트를 깔고 비석을 세운 후 용머리를 얹으니 그 용모가 화려하고 웅장하니 참석종인이 기뻐하였다

할머니 제평군부인양천허씨영단을 묘소 동쪽(우측)에 세웠다 계속하여 구 비석을 묘소 서쪽에 세운 후 대석 등 남은 석물은 전방에 배치하였다.

4월16일(넷째날)

4월17일(다섯날)

묘소에 잔디 심기등 마무리 완료

기타사항

1. 제1일 개묘 전에 현존하는 상석을 이전하다 보니 상석을 놓는 자리의 기반석은 1943년에 개풍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 상석을 기반석으로 한 것 같으며 상석을 받히는 둥근 호박석은 무너로 보아 개풍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 되어 묘역정리 후에 금번에 만든 큰 상석 옆에 제물 준비하는 보조 상석으로 설치하여 원형보존하기로 하였음

「기사 제공 문영공 종중」

우리김씨의 중시조이신 忠烈公(諱 方慶)의 셋째 아드님인 文英公(諱 恂) 宗中에서는 숙원사업이었던 묘역 성역화 사업이 1단계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 냈다. 지난 4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대대적인 성역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4월13일(첫날)

일찌감치 개축 고유제를 올린 다음 회운(안) 회장 및 안사연 회원등 약 2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레 봉분을 열고 유물 발굴에 시선을 집중하였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묘지명은 과연 나올까 우려반 기대반하는 가운데 드디어 봉분 한 복판에서 묘지명은 세상의 빛을 보였다. 모든 종원들은 감사 기쁨의 탄성을 자아 냈다.

重大匡判三司事實文閣大提學上護軍金恂墓碑銘并序



▲ 上護軍金恂墓碑銘

옛날에 이른 바 君子란 德行을 이름인가 功勳을 이름인가 나는 오직 덕행뿐이지 공훈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德行은 마음에 달려 있고 功勳은時機에 달려 있으니 마음에 달린 것은 사람이 닦는 것이지만 시기에 달려 있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므로 사람이 닦을 것을 닦는 자가 君子일 따름이다 무릇 德行은 忠孝에서 비롯하니 忠孝로 當世에 떨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判三司事相君(故人)이 계실 뿐이다 공의 諱는 恂이요 字는 歸厚이다 世系

는 新羅王 金傳에게서 나왔다 內孫으로 三韓壁上功臣司徒亞父 重大匡金宣平이 있다 공은 金傳의 十五代孫으로 一二五八年(高宗四五)에 태어나시니 安東은 곧 그의 貫鄉이다 曾祖의 諱는 敏成이니 左僕射에 追封되었으며 行掌冶署丞 兼直史 諱는 祖의 諱는 孝印이니 追封中書令 行正議大夫 兵部尙書 翰林學士 充史館修撰官 知制誥시라 父親의 諱는 方慶이니 元의 皇帝로부터 中奉大夫 管高麗軍都元帥 推忠靖難定遠功臣 匡靖大夫 三重大匡 判都僉議使司 典理司事 上將軍 上洛郡 開國公을 宣授하시니 食邑一千戶에 實封三百戶요 高麗에서 宣忠協謀定難靖國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을 贈職하신 忠烈公이라 母親은 朴氏니 中書舍人 知制誥인 朴益旌의 따님으로 陰平郡夫人에 封해졌다 공은 붓글씨에 능하여 碑文을 많이 쓰셨다 나이 열다섯에 門蔭으로 入仕하여 掌牲 署丞이 되었다가 뒤에 別將으로 御牽龍行首가 되었다 職務는 비록 東西로 달렸으나 그 뜻은 항상 大科에 있었으니 대개 父親이 비록

지위는 두 임금의 將相에 이르렀으나 오직 스스로 桂籍에 오르지 못한 것을 恨으로 여기시고 아들이라도 할아버지의 偉業을 回復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공이 이 때 문에 힘써 공부하고 게을리 아니 하니 至元十六年 己卯年 春場에서 단번에 金榜의 副長元이 되었다 이 해에 처음에는 攝郎將을 제수했다가 뒤에 다시 國學直講이 되었으니 이는 공이 父親의 남긴 恨을 풀어난 것이다 이로부터 父親께서 더욱 막내인 공을 사랑하여 항상 左右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上國(元)에 賀正할 때에도 늘 따르게 하셨다 다만 日本을 征伐할 軍船에 올라 따르는 것은 許諾하지 아니하였는데 從軍하여 危險한 일에 參與치 않게 하심이다 공이 이에 出戰의 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戰艦에 올랐는데 자못 아버지를 지키고 구한 功이 있었다 이는 공이 오직 忠孝에 專一하여 奮鬪하고 自身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壬午年에 殿中侍史로 옮기고 다음해에 외직으로 尙州判官이 되었는데 政事의 名聲이 朝

廷에 올라가 一年이 못되어 내직인 典法佐郎 通禮門事 考功正郎이 되었다 丙戌年에 南方使로 父親을 陪行하여 故鄉에서 할아버지 墓所에 參拜하였다 戊子年에 秘書少尹 知通禮門事에 除授받고 이해에 임금께서 공을 世子府 行李別監으로 삼아 師傅의 責任을 맡기셨다 壬辰年에 朝顯大夫 典法 摠郎 知制誥가 加添되고 여러번 옮겨 少府尹 國學 軍簿摠郎 典理摠郎 朝奉大夫 秘書尹 三司右尹가 되니 모두 三字銜을 겸하였다 元貞乙未년 겨울에 知貢舉로 선발한 이들은 모두 當時의 名士들로 크게 잔치를 여니 朝野의 輿論이 感嘆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는 부친에게 극진한 효도이다 이해에 朝議大夫가 加添되었다 丙申年에 世子舍人을 兼職하였다 大德丁酉年에 國學典酒로 옮기고 또한 朝奉大夫 密直使 右副承旨가 더해졌고 곧바로 左副承旨 寶文閣直學士로 옮겼다 다음해 右承旨 知版圖司事가 더해지니 매양 옮길때마다 三字銜을 겸하였다 이해 봄에 南方使를 하고 돌아오니

通議大夫 光政副使 承旨 成均祭酒
를 내리고 다시 正議大夫 集賢殿
學士 左散騎常侍가 되었다 이해
七月에 다시 密直司 右承旨 國學
祭酒 寶文閣學士 知民曹事가 되었
고 三字銜은 유지하였다 八月에
奉翊大夫 三司左使 崇文館學士가
더해지고 九月에 다시 正獻大夫
密直司 左承旨 判秘書寺事 充史館
修撰官 知制誥 知軍簿司事가 더해
지고 十二月에 奉翊大夫 密直司副
使 文翰學士를 除授하였다 己亥年
에 그칠 때를 알아 退職을 청하였
다 이듬해 八月에 父親이 돌아가
시니 遺言대로 故鄉에 葬禮하였다
庚戌年 겨울에 先公의 墓에 祭祀
를 치렀다 壬子年에 임금께서 불
러 重大匡 上洛君을 삼고 先公의
茅土(爵土)를 물려받았다 己未年
에 다시 先公의 墓에 參拜하였다
임금께서 막내 永煦를 奉使官으로
陪行케하니 그 行路를 重히 여겼
기 때문이다 至治元年 辛酉年에
賢明한 宰相을 뽑고자 함에 公이
判三司事에 拔擢되었다 八月에 寶
文閣大提學 上護軍이 더해지고 이
달 二一日에 病患으로 私邸에서
돌아가시니 享年 六十四이다 公의
性稟은 敦厚 溫柔하고 內實은 굳
세셨으며 孝悌忠信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다 안타깝다 公의 才德으
로 몇 년만 더 사셨다면 어찌 利
澤이 만백성에게 미치지 않았겠으
며 名位가 여기에 그칠 뿐이리오
匡靖大夫 僉議中贊 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 判典理司事 世子師로 文
敬公의 諡號가 내려진 許珙의 따

남에게 장가들어 四男三女를 낳았
다 永暉은 지금 都官直郞陝州事
가 되었고 永暉는 지금 興威衛保
勝別將이 되었고 思順은 머리를
깎고 慈恩宗 大德이 되었고 永煦
는 司憲持平이 되었다 따님은 첫
째가 入內侍中正大夫親禦軍大護軍
鄭漬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大匡上
黨君 白頤正에게 시집갔고 셋째는
舍人別里哥不花이니 大元左承相
阿忽反의 아들이다 永暉等이 德水
縣 馬山에 葬地를 정하고 내가 先
公의 親舊라 하여 公의 行狀을 갖
춰 와서는 墓碣文을 청함이 매우
懇切하니 내 비록 病中이나 차마
굳이 拒絕하지 못하고 짓노라 銘
하여 이르기를 偉大하신 忠烈公은
우리나라 郭汾陽이로다 집안가득
子孫들이 각재주를 뽐내나니 그중
에도 막둥이가 최고로 꼽히었네
아버지 섭섭함은 科擧及第 없음이
라 公이 그 뜻 받들어 科擧를 準
備하네 家法을 傳受하여 詩文을
본받더니 젊은 나이 及第하여 四
方に 輒친 명성 臺閣重職 歷任하
며 지으신 글 香氣롭다 文柄을 잡
고부터 門下人材 成行하네 父親의
기쁨속에 長壽를 冀願하며 生前에
宰相되고 金章에 記錄되네 孝道榮
光 힘쓰니 故鄉도 애달프다 지식
道理 흠없으니 온갖 상서 내리도
다 늘그막에 退職하니 하늘의 뜻
아득하다 功臣田을 傳承하니 家門
의 榮光일세 政事에 未參하고 아
홉해를 보내다가 最高 宰相 오르
니 나라 百姓 平安했네 가실 때도
아니온데 급작스레 가시었소 公이

야 관찮다지만 나라에는 傷心일세
碑石에 새긴 功勳 無窮히 미치리
라
大元至治元年 辛酉年十月十四日
宣授朝列大夫翰林直學士三重大匡
檢校僉議政丞右文館大提學監春秋
館事 驪興君 閔漬 謹撰
譯 傍孫 元榮

墓誌石 發見 및 移葬 經緯
嗚呼라 公의 墓所가 失傳된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도 모르다가 一九
四二年 봄에 公의 墓誌石이 京畿
道 開豐郡 臨溪面 佳井里 馬山 동
쪽 언덕에서 發見되었는데 張氏들
의 무덤 부근이었다 이에 받들어
살핀 다음 옛 자리에 그대로 守護
하려 했으나 張氏들의 放恣한 惡
行으로 부득이 다음해인 一九四三
年 봄에 京畿道 安養市 冠陽一洞
 뒷산 艮坐에 移安하였다 이때 配
位이신 齊平郡夫人 陽川許氏 靈壇
도 함께 세웠다 이 산은 翼元公의
十六代孫인 讚源氏의 先山으로서
한 葬地를 獻納해 준 것이다 지금
서 있는 墓碑石은 閔公이 撰한 墓
誌文 記錄을 다시 引用한 것이다
閔公은 歷史의 巨匠이기에 當時에
誌石에 새길 글을 부탁하였는데
그 事實을 記錄함에 있어 매우 뜻
깊게 밝혔다고 後世에 傳해 지고
있어 그 記錄을 찾으려 했으나 萬
의 하나도 엿볼 수가 없었다 다만
일부 깎이고 떨어져 나간 것이 있
어 恨이 되나 중간에 빠진 것을
임의로 補識할 수는 없었다 그러
나 한 토막의 고깃덩이로도 온 술

의 고기 맛을 알 수 있으니 玉에
작은 티가 있어도 璞玉이라고 하
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
라

公 歿後 六二五年 後인 一九四六
年 十月 日
後孫 若浩 謹識 舜默 謹書 達演
并識

追記
그 後 讚源씨 後孫이 이 산을 他
人에게 賣渡할 때 文英公 墓 領域
三百餘坪을 우리 派門中에 喜捨하
여 提按翼 三派 共同名義로 登記
를 畢하였다

聖域化 後記
公께서 文武將相으로서 活躍하다
가 歿하신지 六八七年의 歲月이
흘렀도다 지난 一九四三年에 移安
造成된 公의 墓域을 聖域化함에
있어 高麗末 宰相의 品階에 맞는
墳墓樣式으로 重建하게 되었다 墓
誌銘을 바탕으로 新墓碑文과 부속
石物을 建立하였도다 任員들의 熱
과 誠으로 計劃 推進하였는데 이
는 五十萬 후손들의 知慧와 力量
이 集結된 것이로다 公의 崇高한
精神과 빛나는 業績은 永久하게
傳授될 것이며 白凡 金九선생과
같은 民族의 큰 스승과 棟梁들이
무수히 出現하여 國家와 世界의
歷史에 크게 공헌하기를 간절히
祈願할 뿐이로다
西紀 二〇〇八年 四月 日
文英公(諱 恂) 宗中 後孫一同

2008년도 판서공(휘 愷)이하 4위 시향제 거행



2008년 4월 21일(음력 3월 16일) 6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선영에서 총렬공의 장자이신 판서공 이하 4위 선조님의 시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시제를 봉행한 4위 선조님

은 전법판서 상장군 휘 愷, 총숙공(보문각 대제학) 휘 承用, 상락공(개성서부령 첨의평리) 휘 厚, 군사공(수안군사) 휘 七陽 등 네 분이시다.
이 날 남음 대총회장께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14일 대총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 시제에 참여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재임 기간 동안 계속 참여할 것과 대총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대총회 역점사업을 설명한 뒤 종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하였다.
이 날 헌관 및 집사는 다음과 같다.
△판서공 휘 愷
초헌 광도(문온공과 종손)
아헌 남음(대총회장)
종헌 용주(문영공종회 총무이사)
대축 찬회, 집례 영환
찬인 윤만, 집사 태우, 태영
△총숙공 휘 承用
초헌 희룡, 아헌 흥목
종헌 봉희
△평리공 휘 厚
초헌 이경(개성윤공과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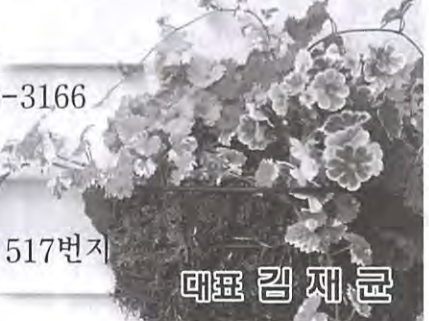
아헌 재응, 종헌 재천
△군사공 휘 七陽
초헌 수인, 아헌 영수
종헌 세묵
한편, 이번 시제를 앞두고 문온공과종회 임원 및 안사연 8명(영환, 윤만, 발용, 광도, 태우, 태영, 윤식, 용주)은 2박 3일 일정으로 강진군에 산재한 총렬공 유적지를 답사, 현재까지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던 '국사봉'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사제공 안사연」

香田園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481
TEL : 02-445-9777, 6888, 783-3166
FAX : 02-445-6999
H.P : 011-395-5327

농장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517번지
TEL : 043-532-5674

경조화환 · 화분



대표 김재훈

고려송의전 춘계대제 봉행

지난 4월8일 오전 11시 정각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소재 고려송의전에서 춘계대제가 봉행되었다. 이날 대제의 초헌관은 연천군수이셨으며 우리문중에서는 (翼)在永대총회 이사가 헌관으로 참가하였고 (按)弘植 전대총회장. (典)春教.(郡)景默대총회부회장,대

종회에서 (按)觀默 전사무총장, 泰雲 사무총장 등 10명의 종친이 참석하였으며, 송의전에는 총렬공할 아버님께서 고려16공신으로 배향되어 있다.
송의전 보존회장은 대총회 전사무국장 (익)命會 이다.

안렴사공파 파종회 정기총회 개최



안렴사공파종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9일 오전 11시에 오창읍 소재 오창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에서 80여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인사소개, 회장인사 전년도 결산심의, 금년도예산안에 대한 심

의결과 원안과같이 의결하고 이어 임원개선은 영만 현회장을 참석회원 전원이 유입에 동의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으며 기타 임원은 아래와 같다. 또한 종회운영에 관한 토론에서 운용 중인 종재의 원활한 운용에 대한 의견의 제시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대종회에서 용주부회장, 관묵 전 대종회사무총장, 태운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임원명단: 고문 창희, 관묵, 명예회장 재택, 회장 영만, 부회장 재홍, 태문, 대연, 성묵, 총무 홍식. 「인렴사공 종회 총무제공」

진천군 종친회 개최



안동김씨진천군종친회 제26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8일 11시 진천읍내 청송회관에서 80여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개최되었다. 이날회의는 국민의례에 이어 동무총무의 경과보고, 용회감사의 감사보고, 2007년 결산승인, 2008년예산심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영만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총렬공 김방경할아버지의 핏줄을 이어온 후손들이며 이 고장에서

화목단결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지도자가 되는 역량을 갖추자고 역설하고 또한 우리 종친회를 창립하고 26년간 이끌어온 사령, 영조전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하였다.

진천군종친회에서는 1995년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보람(청주대학교 사회복지과4년), 은하(대전보건대학 임상병리과2년) 종친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지금까지 30명에 지급하였다. 본 종친회는 청년회와 여성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정기총회, 야유회, 선조유적지참배 등 다른어느 성씨종친회보다 모범적이고 앞서가고 있다. 「진천군종친회 동무총무제공」

청천종친회 본회방문



지난 2월 26일 괴산군 청천종친회(회장 思鎭) 일행 30여명이 대종회를 방문 하였다. 먼저 총렬공 영정에 묵례후 태운 사무총장이 안동김씨 대종회 설립과 현재 운

영상황, 안동 총렬공 할아버님의 묘지 실전과 되찾은 경위, 할머니이신 냉평국부인 죽주박씨 설단경위등의 설명을 들었으며 종친회 운영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청천종친회원들은 동일 백범기념관을 둘러본후 백범묘소를 참배하고 남산관광을 마친후 본회를 방문하고 귀향하였다.

인천종친회

창립 제32회 정기총회 및 제13대 회장취임식



인천종친회(회장 춘교)는 지난 4월 12일(토) 오후5시 시내 신신웨딩홀뷔페에서 8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32회 정기총회와 13대 회장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내빈으로 대종회홍식명예회장과 남응대종회장, 태욱전감사, 성회전 부회장, 태운사무총장, 그리고 화성에서 재남종친회장과 은희, 총신 종친, 정남에서 두교종친회장, 용우종손, 주식부회장의 종친 9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회순에 의거 춘교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대종회 홍식명예회장, 남응회장의 축사와 종친회발전에 공

이큰 재현, 경렬, 원동종친에게 공로패와 부상이 수여되었다. 이어 지난해 회계결산, 사업추진결과보고와 200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임원선출은 제13대 회장으로 춘교 현회장을 만장일치로 연임추대 하였으며 부회장 5명, 감사 2명, 총무이사등 임원진 전원도 연임되었으며 임기는 3년간이다. 그리고 홍식명예회장과 경묵고문, 종욱 부총무로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어 창립 32주년 기념케이크 절단식과 춘교회장의 취임식을 끝으로 일부행사를 마치고 석식에 이어 2부 순서로 노래자랑등 여흥시간을 가졌으며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을 증정하였고 종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후9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에 앞서 2월 17일에 종친 50여명이 월례회의를 겸한 윗놀이 행사를 개최한바 있다.

「인천종친회 제공」

노종친의 헌신적인 승조정신이 빛나다



송산사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 거주하는 (郡)영득종친은 84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조인 찰방공(察訪公) 號 부휘제 김감(金堪)의 유적인 송정, 송산사, 후송정의 개축과 보수에 영득종친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부친이 각출한 성금 300만원을 기초로 하여 7년간 정읍시청을 수습차례 방문 유적의 개축과 보수를 요청하여 정읍시 예산 2억7천7백만원으로 송정과 후송정은 완공하였고 송산사개축은 완료되고 부속시설은 완공시점에 있으나 만승보에 등재하는 염원을 이루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다. (기미보 서원묘사록에는 충남 금산의 송산사에 배향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을 확인 할수 없음).

찰방공은 원래 파주인 鼎字 一宇의 次子로 파주 성균관장이었으나 광해군의 폭정과 폐모사건의 부당함을 항소하다

반란자로 몰려 전북 칠보 외가로 피신하여 화를 면하였고 병자호란시 白首從軍하여 요동백 응하장군의 제 응해장군과 함께 근왕병 일천으로 전방산성에서 20여일간 청군과 전투하였으나 패배하여 수원산성에서 37일간 축성중 인조대왕이 삼전도에서 항복함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한

을 품고 말년에 정읍 칠보에 기거하면서 학문을 연구하였다. 집주위에 다섯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불멸의 절조를 표했으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희의동 찰방송(察訪松)이라 하였다. 그후 사림(士林)이 그의 절의를 기리고자 송산사, 영모당, 송정, 후송정을 세웠고 송산사는 賜額도 받았으며 察訪公은 主壁으로 모셔져 있다.

현재 위 유적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3호로 성황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송정

송례문에 불 지른 자는 방화범이 아닌 민족 반역자



▲ 김창희
도평의공파회장

서울에는 사대문이 있다. 동대문이라고 말하는 흥인지문과 서대문이라고 불린 돈의문 이 있으며, 남대문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송례문과 북대문으로 통칭하는 숙정문이 그것이다. 숙정문은 일명 흥지문이라 하였으니 살펴보면 인의예지가 곧 동서남북이 되고 춘하추동이 되고 원형이정 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천도의 네 가지 덕목이니 곧 사물의 근본원리를 말한다. 원은 봄에 해당되는 만물의 시초로서 인이 되고 형은 여름에 속하는지라 만물이 자라나 례가 되고 이는 가을에 속하여 만물이 이루어져 의가 되고 정은 겨울에 속하여 만물이 거두어져 지가 되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조선조가 개국하고 4년만인 1395년에 건립한 도성의 사대문은 서대문과 북대문은 문루가 없는 대문으로 기금은 헐려지고 없다. 동대문은 보물1호로 지정을 받고 남대문은 국보1호로 지정을 받아 수도의 지킴이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 중 남대문은 항간에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다. 서울에 다녀온 사람을 만나면 남대문 보았냐. 문지방이 있더냐. 없더냐. 구멍 중에 가장 큰 구멍은 남대문 구멍이다. 술에 취한 사람은 남대문이 바늘구멍만 하다. 주소가 불명하거나 수취인이 확실치 않은 우편물

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서울 남대문 입납”이라 말하였다. 겨울의 마지막 절후 대한이 지나고 봄의 첫 절후 입춘도 지나고. 겨우내 추위가 없다고 이상난동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는데 입춘을 전후해서 찾아온 늦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니 자연이 무력한 인간에게 본패를 보여주는 모양이다. 언제나 이맘때가 되면 과수재배, 기술교육, 벼농사 교육, 고추작목반 교육 등 날을 건너 영농교육이 이루어진다. 모두들 명년농사를 대비하여 열심히 청강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성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그런 행정을 펴고 교육을 시켜도 들어줄 사람도 없을 듯한 세상의 분위기다. 설사 강의장에 나왔다고 해도 다 알고 있는소리, 듣기 싫다는 식으로 앞뒤를 살피면서 자리를 뜨거나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벌일 것만 같은 물질만능시대가 된 것이다. 나는 새는 두 날개가 건전함으로 창공을 날 수 있다. 한쪽 죽지가 부러진 새는 드높은 창공을 날 수 없다. 달리는 수레는 두 바퀴가 건전함으로 대로를 달릴 수 있다. 한쪽 바퀴가 펑크 난 수레는 자제 리에서 맴돌고 달릴 수 없다. 우리 인간도 정상케도의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물질과 정신의 두 바퀴가 건전함으로 생활 할 수 있다. 물질은 풍요로운데 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죽지가 부러진 새, 바퀴가 펑크 난 수레와 같이 날수도

달릴 수도 없을 것이다. 계모가 전 처의 아이를 죽여서 쓰레기통에 담아 논두렁에 불태워놓고 태연하게도 우리아이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방송 인터뷰까지 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 600년 동안 희 비애환을 말없이 겪으면서 의연한 자세로 서울을 지켜온 민족의 상징 송례문을 사생활의 행정 감정으로 불을 지르는 민족의 반역자가 또 어디에 숨어서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송례문 소실의 책임을 지고 문화재청장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공무원의 출장에 부인 대동은 또 무엇이며 취사 금지 문화재 구역에서 취사행위는 무슨 심산이며, 자기 저술의 책자를 정부 예산으로 구입함은 무슨 철부지의 행동인가! 고급관리가 녹봉만 해도 생활은 할 터인데 헛! 거 참 쯤쯤....., 불타고 다음날에 국민들은 ‘야 이놈들아!’ 하는 조상들의 호통을 받고 마음으로 울며 장사도 치르기 전인데 성급하게도 국민의 성금으로 복원 운운하는 얘기가 나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금방 말을 주어 담아 대국민 사과까지 나왔으니 쓴웃음을 금할 수가 없다. 옛날 어른들이 수하의 잘못을 보고 ‘야들아 절박하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참 절박하다. 입에다 무거운 돌이라도 달았으면 좋으련만? 성금은 어디 제대로 되는가? 사생활이 넉넉한 기관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로 금일 봉이요, 심지어 시골의 단체 회장

대표도 나름대로 경비를 긁어 참여한다. 다만 쫄따구와 서민만 싹짓돈을 축낸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곽이 완전하지 못하고 병사가 많지 않은 것이 나라의 재앙이 아니며 들판이 개간되지 않고 세금이 모이지 않는 것이 나라의 걱정이 아니다. 뒷사람이 예가 없고, 아랫사람이 배움이 없으면 나라를 해치는 백성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하였다.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학살하는 정책을 썼으나 무식한 백성들은 사나워서 령을 따르지 않았고,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았고 방탕해서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스려도 변화되지 않으니, 건국 후 10여 년 만에 필부에 의해 나라를 내주고 말았다. 모두가 교육부재 문화부재의 탓이다. 김구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우리의 부력은 의식이 넉넉하면 되고 우리의 국력은 남의 나라의 침범을 받지 않으면 된다. 다만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수준이다. 문화의 힘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남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말이다.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 골목길포장, 마을회관 건립에만 마음을 쓸일이 아니다. 문화진흥정책에 힘을 쓸때가 바로 지금이다. 「순국 2008년 4월호에서 필자의 승락을 얻어 전재 편집자」

제사용 재산 제사 지내는 자 승계합법

현재, 전통보존과 제사 법적 정당성 인정. 헌법재판소가 상속재산 중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토록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사법 역사상 최초로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 전통의 보존과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재판관)는 김모씨들이 “상속재산 중 일정범위의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단독 승계하도록 한 민법 제1008조의 3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사용 재산은 제사 비용 마련등 제사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필

요할 뿐 아니라 가문의 자랑이자 종족 단결의 매개물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재산승계는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일차 목적뿐아니라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고 있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상속법제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재산상속과 더불어 제사상속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사상속은 선조를 숭배하여 보은반은지성(報恩反恩之誠)을 극진히 하려는 유교의 예교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고래의 순풍양속의 하나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유교신문 3.15일자에서」

문중 목조건물 화재 대비를 철저히 합시다

지난 2월11일 국보제1호 송례문 화재를 보고 우리 문중의 대처방법 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문중의 목조건물은 총렬공할 아버님의 제실인 음수재를 비롯하여 영정각,신도비각등 대중회 관리 목조건물과 각과종회 관리하에 있는 제실과 비각등 다수의 목조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보험가

입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다시한번 점검하여 보아야 할것이다. 첫째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 되고, 둘째 전기시설, 화기취급시설에 대한 엄격한 점검, 셋째 화재보험가입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넷째 소방관서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

뿌리찾기

씨족의 뿌리를 찾고자하는 종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어 알려드리니 우리 안동김씨로 확인하여 같이 동족의 우애를 누릴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종친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 金光植 父 萬浩 祖父 鳳起 曾祖父 仁洙
- 원래살던곳 : 충북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97, 1900년대초 음성군 음성면 신천리612번지로 이주 생활중 화재로 족보가 불에 타서 없어짐
- 추적근거 : 萬浩씨의 기억에 어

러서 어른들이 안렴사파라고 하는 말을 들음

- 金斗烈 父 乃文 伯父 昌五 祖父 洪西
- 원래살던곳 : 전남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26번지
- 추적근거 : 부모세대는 본인이 어려서 작고하였으며 다만 고모 한분이 요동백파의 자손이라고 알려주었음.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알릴사항이 있으시면 대중회로 연락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안동 가족

충북 청주거주 익원공과 21대손 태훈가(家)는 직계내에 5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주위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2녀 이학박사 은영은 충북대학교 조교수, 삼녀 의학박사 혜정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교환교수, 사위 공학박사 정병우는 영진대교수, 오남 교육학박사 성식은 한국교육대학원 연구위원, 자부 교육학박사 송해정은 중앙대학교 강사로 각각 국가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기 판매에 속지 맙시다 !

최근 안동김씨 대총회를 사칭 (예: 안동김씨종친회등)하거나 대총회 또는 종친회 임원을 가장하여 전국의 종친들에게 족보를 다시 만든다든지 종친회에서 책을 내어 판매하고 있다면서 전화나 방문하여 판매하는 사기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전화로 구입의사를 물어 보거나 먼저 안내장과 책자를 택배로 보내고 추후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안동김씨대총회에서는 모든 간행물은 본 안동김씨회보에 공지하고 있고 파종회 간행물 또한 같이할 예정이며 절대로 전화판매나 방문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내용을 모르는 책자가 배달되면 즉시 수취거부하십시오. 만약 책자를 수취하면 반품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상한 전화판매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총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절강성 해염(海鹽)에 김구전시관 재개관



시관을 만들었으나, 지난 해 여름 집중호우로 건물의 일부와 내부 전시물이 훼손되었다. 이에 우리 국가보훈처가 예산을 지원하여, 전시내용을 보완하고 전시물을 다시 제작·설치 하여 재개관을 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12월 21일 중국 절강성 가흥시 해염현 남북호평경관지구 안에 있는 김구전시관이 재개관되었다. 백범 선생은 1932년 이봉창·윤봉길 의사 의거 후에 일제의 검거를 피해 중국인 저보성 선생의 도움으로 가흥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가흥도 안전하지 않아 더욱 외진 곳으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이 해염이다.

중국 해염 정부에서는 2001년 5월 자체 예산으로 그곳에 김구전

김상웅 독립기념관장과 백범 선생의 손자인 김양 대한민국 주상해총영사, 국가보훈처 관계자 등 국내인사와 중국 정부 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전시관에는 백범 선생의 흉상과 유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특히 가흥과 해염에서의 백범선생에 관한 사진 및 문헌 자료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백범회보(2008년 봄)에서」

안동김씨 대총회보

다음번 발행될 회보는 창간 100호입니다.

1. 어떠한 내용도 좋으니 원고를 보내주시면 검투후 게재하겠습니다.
2. 본회보를 받으시는 종친께서는 이사등으로 주소변동시 꼭 대총회에 통보하여 계속 회보를 받

아보시고 통상회비를 납부합니다.

3. 통상회비(년 2만원) 또는 평생회비(20만원)은 회보에 동봉되는 지로통지서에 기재내용을 확실하게 적어 납부하여 주십시오.
4. 광고를 게재하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1회 정기총회 회비

- ◎ 밀직사사공파 : 용화, 영웅, 병록
- ◎ 개성윤공파 : 창식, 상국
- ◎ 군사공파 : 재택, 재하, 중묵, 창희, 용희, 재근, 상희, 재열, 재홍, 재화, 창수, 재구, 영수, 재후, 경묵(일산), 남희, 정수, 수인, 위용, 인희, 덕용, 세묵, 경묵(서울), 송묵, 유묵, 찬희, 재균, 준희, 민수, 용희, 사진, 찬희, 우용, 인용, 상용, 재영, 경묵(인천), 재화, 태용, 준희(광탄), 태우
- ◎ 전서공파 : 면교, 재중, 재열(서울), 근성, 중무, 재열(하남시), 인희, 재환
- ◎ 부사공파 : 재유, 재은
- ◎ 문온공파 : 영광, 덕만, 광도, 중희, 영환, 영운
- ◎ 안정공파 : 선호
- ◎ 도평의공파 : 태선, 희욱, 은호, 원희, 회수
- ◎ 대호군공파 : 성무, 총희, 경중, 태식, 신, 재철, 태만
- ◎ 제학공파 : 천응, 태용, 유응, 진응, 천호, 태동, 필응, 재명, 동호 재철, 상순, 상욱, 영응, 태현, 윤식, 태연, 은형, 갑수, 윤지애, 이의자, 홍승완, 태홍(천안), 태일, 태악, 봉희, 운창, 태홍(서산 양대동), 창희, 송응, 창응, 재강, 세희, 상봉, 달응, 남식, 규호, 영묵, 태형, 규팔, 용두, 동식, 정응, 태욱, 태혁, 태현, 태은, 규태, 태억, 태동, 재명, 광묵, 태선, 창묵, 윤철, 태경, 규선, 규복, 경묵, 태섭, 용제, 흥식, 용선, 상천, 태환(청주), 태현, 태환(서울) 태철, 학응, 태호, 명년, 태홍(서산 운산면), 규현
- ◎ 안렴사공파 : 태형, 용훈, 정묵, 재균, 동희, 용식, 영희, 성희(청주), 선희, 태관, 재운, 성희(연기), 예묵, 태성, 광식, 영원, 회운, 재덕, 영만, 재만, 영진, 관묵, 사관, 인수, 재동, 용주, 의희, 재득, 재용, 태선, 태은, 재관, 건희, 기식, 광묵, 재호, 갑묵, 재영, 태열, 용희
- ◎ 익원공파 : 태철, 만교, 태열, 태영, 좌희, 재규, 덕희, 인희, 용묵, 광희, 태진, 태호, 영희, 재승, 원구, 재영, 재현, 실경, 수영, 재택, 대회, 수철, 도갑, 이식, 관식, 태갑, 재균, 광희, 근식, 재우, 윤묵(강릉), 재현, 재덕, 범묵, 영채, 유묵, 장희, 대식, 윤묵(서울), 응희, 중희, 용세, 재훈

총회비 계 : 6,950,000원

제41회 정기총회 찬조금명단

- ◎ 일백만원 : (提)남응-대총회회장 (冀) 신-백범기념사업회 회장
- ◎ 이십만원 : (典) 화성중중
- ◎ 일십만원 : 익원공파총회, 안렴사공파총회 제학공파총회, 청주종친회 대구종친회, 서산시태안군종친회 인천종친회, 대호군파총회 서운관정공파총회, 군사공파평택중중 (文)광우, 중희 (典)춘교 (正)수진 (提)태욱 (冀)실경, 태영, 재우 (郡)찬희 (郡)봉희 (大)태만
- ◎ 오만원 : (冀)합천매운재회원, 도갑, 재갑, 중희, 관식 (提)상천, 태욱 (郡)준희 (文)덕만, 재호 (按)사관 (典)용우 (郡)원희 중평군종친회
- ◎ 삼만원 : (冀)용덕
- ◎ 이만원 : (密)용화

계 : 5,050,000원

<화환 기증>

-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김신
- ◎ 큐렉소 (주) 회장 김태훈
- ◎ 제학공파총회
- ◎ 문영공중회
- ◎ 인천 종친회
- ◎ 제학공파 생원공중중
- ◎ 제학공파 학암중중
- ◎ 충무공 김시민 장군기념사업회
- ◎ 향전원에 대표 김재균

<고유제 찬조금>

- ◎ 일백만원 : 남응회장 ◎ 이십만원 : (郡)사촌문중
- ◎ 일십만원 : 서운관정회장 상호
- ◎ 물품제공 : 중평종친회, (正)태인, (冀)성식, 안동종친회

성금을 보내 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2008.1.25~2008. 4.30)

- ◎ 평생회비
 - 20만원 : (郡)후묵(준묵)-경북영천 (按)태운-대총회사무총장 (冀)태웅-서울 광진구, 윤묵-서울 중구 계 : 800,000원
- ◎ 찬조금
 - 30만원 : (提)상천-제학공파회장
 - 10만원 : (按)태만, 태성 (典)태영
 - 5만원 : (文)명희 (郡)재근 (冀)세용, 용식 (正)태한 (按)경준, 광묵
 - 4만원 : (按)인묵
 - 3만원 : (冀)용해 계 : 1,020,000(원)
- ◎ 통상회비
 - 20만원 : (冀)월랑중회(이산시)
 - 5만원 : 논산시 종친회 (密)재교 (書)관호 (文)영환
 - 4만원 : (副)수일
 - 3만원 : (郡)재성 (文)윤만, 상식 (典)재청 (提)규보 (按)의희, 태성, 관희, 태현, 문영 (冀)동진, 용구, 율희, 수돈, 태원, 을순, 영두, 원식, 명희, 무명1
 - 2만원 : (密)중희, 재국 (典)재은, 경희, 재한, 인희, 용희, 재용, 재열, 태진, 재중, 재국, 재환 (副)두열 (文)동철, 광열 (郡)수석, 해수, 희도 (按)태은, 태인, 인묵, 태호, 경준, 영준, 재하 (提)용환, 준응, 규태, 윤철 (正)수진, 태덕 (冀)상용, 철희, 재봉, 태훈, 노수, 수대, 민천, 준희, 재화, 병수, 창성, 정희, 재환, 진창, 대석, 재일, 태철, 영덕, 태호 무명-대구
 - 1만5천원 : (典)재헌
 - 1만원 : (郡) 재운 (提) 철호 (冀) 선희 계 : 2,125,000(원)